

주제회의  
어린이청소년

기후위기에 주체가 되어 행동하는 청소년들

이한결  
[광주청소년기후행동 "1.5°C" 대표]

일점오도씨는 광주에서 ‘기후행동’하는 ‘청소년’들의 모임이다. 2019년 여름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에서 기후위기 특강을 듣고 난 후, 이 문제를 살갓으로 느끼게 된 청소년들이 모였다. 그때의 절박함은 4년 차에 접어든 지금까지 꾸준히 행동하게 했으며, 현재 17세~24세의 청소년 18명이 함께하고 있다. 일점오도씨모임의 이름은 지구 임계온도인 1.5°C 임계점을 넘기지 않도록 행동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1.5도라는 평등하지 못한 임계점을 인식하며 인간이 배출하는 탄소배출을 zero로 만들 때까지 행동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모임을 꾸리기 시작했을 때는 책과 다큐멘터리를 보고 공부와 토론을 하며 기후위기에 대한 지식을 쌓아갔다. 기후위기에 대해 알고 나니 우리는 바로 실천과 행동으로 이어졌다.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행동들을 꾸리며 광주에서 청소년활동가로 자리 잡아나가고 있다. 많은 사람의 관심 속에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활동가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멀리 보며 오래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액션을 꾸린다. 연극제, 희곡 읽기, 퀴즈쇼, 비건 요리 클래스 등 다양한 활동으로 광주의 시민들과 함께 행동을 이어오고 있다.

머리의 가치를 마음으로 행하며 사는 건 쉽지 않다. 기후 행동은 개인의 실천이 중요하게 다뤄지면서 수많은 갈등과 마주하게 된다. 자신과의 싸움, 타인과의 싸움.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기후 우울이 우리를 덮쳐올 때가 있다. 기후 우울의 큰 이유 중 하나는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우리가 '기후 행동의 주체성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 청소년에게 기후 행동에 제약을 두는 것은 자신을 '무력한 피해자'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 나에게,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권리가 있고, 문제에 직면해 해결하는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기후위기에 관해 공부할 권리, 채식 급식을 먹을 권리, 가죽공예 수업을 거부할 권리, 기후 행동할 권리 등을 외치는 일은 청소년의 권리의 운동이자 기후정의 운동으로 연결되어 이 운동이 우리의 삶에 더욱 깊이 들어오게 되었다.

우리는 앞으로도 기후위기 ‘공부’와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행동’ 그리고 기후 우울로부터 ‘회복’하는 것을 놓지 않고 나아가려 한다. 이 지난한 일을 해내며 우리는 서로를 등불로 여기게 되었다. 어두운 길을 함께 걸으며 좌절에 빠졌을 때 금방 회복해 올라올 수 있도록 서로를 비추며 서로의 조력자가 된 것이다. 그 마음들이 모여 세상과 연결되려는 간절함으로, 순수하게 행동하는 마음으로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오직 해내려 한다.